

## 한국어의 수량범주와 그 표현 양상

채 옥 자 \*

수량범주의 표현은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나 그 구체적인 표현 단위나 형식에 있어서는 개별 언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실현된다. 한국어의 경우 수량범주의 표현은 형태소로부터 어휘, 구나 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위로 나타나며 게다가 수량을 표현하는 어휘들은 통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범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수량범주를 기존의 한국어문법 연구에서는 문법 내에서 수사, 분류사, 수량사, 양화사 등으로 한정시켜 주로 통사론적으로 다루어 왔었는데 본고에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의미적 범주의 차원에서 한국어의 수량범주의 특성 및 체계를 파악하고 그 표현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어에서 수량범주는 양태범주, 공간범주, 시간범주 등과 같은 의미문법연구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우선, 수량의 개념을 비롯하여 수량범주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음 수량범주의 특성을 밝히었으며 그다음 수량범주에 대하여, 3장에서 얻어진 특성을 바탕으로, 기본 분류를 비롯한 세부적인 분류를 시도하여 체계를 세웠다. 한편 이러한 체계가 문법연구에 있어서 가지는 의의를, 주로 한국어 분류사의 분류체계를 재조명해 보는 것을 통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수량범주의 표현 양상에 대해 문법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런 연구가 한국어의 의미문법연구의 빈 칸을 채우는 기초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핵심어: 수량, 인지, 수량범주, 수량범주의 표현

---

\* 중국 復旦대학교 한국어학과.

## 1. 머리말

‘수량’은 인간이 세계를 인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주 중의 하나이다. 인간은 ‘수량’이라는 개념으로 주변세계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파악하게 되는데 인간의 인지세계 속 사물(인간과 동물 포함), 사건, 성상(性狀) 등에는 대부분 수량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사물에는 기하학적 수량 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사건에는 동작이나 시간의 수량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성상(性狀)에는 등급의 수량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객관세계의 수량적 요소와 여러 가지 수량화 처리의 도구 및 방식 등은 ‘수량’이라는 객관세계를 반영하는 인지범주를 이루게 되며 이런 인지범주가 언어에 투사되면 언어 세계의 수량범주를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수량범주는 ‘수량’이라는 인식의 개념을 언어화한 것이다.

언어는 인간이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 즉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의미나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게 마련이다. 이런 시각에서 자연히 언어학의 과제는 어떤 의미를 어떤 언어적 단위나 형식으로 나타내는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량’이라는 의미범주를 어떤 단위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하는 언어적 실상을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동시에 개별 언어인 한국어에서 인지 개념의 범주인 수량범주가 어떠한 언어적 단위나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즉 수량범주의 언어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연구 또한 충분히 논의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의미와 기능 중심의 연구 및 언어 유형론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량표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차원의 기술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수량범주의 표현은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나 그 구체적인 표현 단위나 형식에 있어서는 개별 언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실현된다. 한국어의 경우 수량범주의 표현은 형태소로부터 어휘, 구나 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위로 나타나며 게다가 수량을 표현하는 어휘들은 통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범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수량범주를 기존의 한국어문법 연구에서는 문법 내에서 수사, 분류사, 수량사, 양화사 등으로 한정시켜 주로 통사론적으로 다루어 왔었는데 본고에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의미적 범주의 차원에서 한국어의 수량범주의 특성 및 체계를 파악하고 그 표현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어에서 수량범주는 양태범주, 공간범주, 시간범주 등과 같은 의미문법연구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제기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우선 2장에서는 수량의 개념을 비롯하여 수량범주의 개념을 정립할 것이며 3장에서는 수량범주의 특성을 밝히고 4장에서는 수량범주에 대하여, 3장에서 얻어진 특성을 바탕으로, 기본 분류를 비롯한 세부적인 분류를 시도하여 그것이 문법연구에 있어서 가지는 의의를 논의할 것이며 5장에서는 한국어의 수량범주의 표현 양상에 대해 문법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런 연구는 한국어의 의미문법연구의 빈 칸을 채우는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 2. 수량범주의 개념

수량범주의 성격 규명은 ‘수량’이라는 의미자질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수량범주의 개념 정립 역시 ‘수량’의 개념 정립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한국어에서 ‘수량’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어에서 ‘수량’이라는 용어는 ‘수’, ‘수효’, ‘양’, ‘분량’ 등 용어들과 잘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뜻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수량05(數量) 「명사」: 수효와 분량을 아울러 이르는 말.

양20(量) 「명사」:

「1」 세거나 잴 수 있는 분량이나 수량.

「2」 ((고유어와 외래어 명사 뒤에 붙어))분량이나 수량을 나타

내는 말.

「3」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한도.

「4」 =국량(局量).

「5」 『논리』 사물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말. 사물의 질적인 규정을 제거하여 여전히 남아 있는 사물의 측면으로, 일정한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분량(分量) 「명사」: 수효, 무게 따위의 많고 적음이나 부피의 크고 작은 정도  
수효03(數爻) 「명사」: 낱알의 수.

수26(數) 「명사」:

「1」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

「2」 『수학』 자연수, 정수, 분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허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좁은 뜻으로는 자연수를 가리킨다.

「3」 『언어』 인도·유럽 어족의 언어에서, 명사·대명사의 수 개념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단수, 둘 이상의 사물을 나타내는 복수가 있으며, 그 외에도 둘이 한 단위가 되는 쌍수, 셋이 한 단위가 되는 삼수, 넷이 한 단위가 되는 사수 따위가 있다. ㄴㄷ셈01[ I ] 「8」.

숫자(數字) 「명사」:

「1」 수를 나타내는 글자. 1, 2, 3, …… 또는 一, 二, 三, …… 따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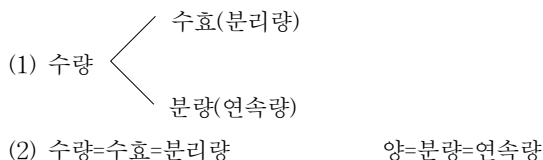
「2」 금전, 예산, 통계 따위에 숫자로 표시되는 사항. 또는 수량적인 사항.

「3」 사물이나 사람의 수.

이상과 같은 ‘수량’, ‘분량’, ‘양’, ‘수효’ 등 낱말의 정의를 보면 이들 상호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없을 정도이며 학적 증명의 정의에 어긋나는 순환논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수량’이라는 용어가 ‘수’, ‘수효’, ‘양’, ‘분량’ 등과 혼동될 수 있으며 ‘수량(quantity)’이라는 개념 역시 ‘수’, ‘양’, ‘수효’, ‘분량’ 등 개념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인식되지 못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수량범주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혼선이 초래될 소지가 있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수량’은 좁은 의미로는 ‘수효’만을 나타내고, 넓은 의미로는 ‘수효’와 ‘분량’을 포괄하여 나타내는데 이 경우 넓은 의미의 ‘양’과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양’은 좁은 의미로는 ‘분량’의 의미를 나타내고 넓은 의미로는 ‘질’에 상대 개념으로 ‘수효’와 ‘분량’을 포괄하게 된다. ‘수효’는 가산의 대상을 헤아리는 양이고 ‘분량’은 불가산의 대상을 헤아리는 양이다. 즉 ‘분량’은 분리량(分離量)과 연속량(連續量)으로 대별되는 양 개념 중 연속량에 해당되는 것이 된다. 이로부터 ‘수량’, ‘양’, ‘수효’, ‘분량’ 등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에서 ‘수량’은 넓은 의미이고 이 경우 넓은 의미의 ‘양’과 같은 개념이며 ‘질’에 상대되는 개념이며 (2)에서 좁은 의미의 ‘수량’은 ‘수효’와 같은 개념이며 ‘양’의 분리량과도 같은 개념이고 좁은 의미의 ‘양’은 ‘분량’과 같은 개념이며 연속량과도 같은 개념이다.

앞에서 살펴본 ‘수량’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 즉 언어학적 의미이다. 궁극적으로 수학이나 철학에서의 개념범주인 ‘수량’이 가지는 특성이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며 언어의 ‘수량범주’는 어떤 단위나 형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목표인 본 연구에서는 ‘수량’을 인지범주로서의 의미, 백과사전의 철학에서 말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수량’이라는 정의는 수효와 분량을 모두 포괄하는 ‘수량(quantity)’의 의미로, 사물이 지닌 성질인 ‘질(quality)’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논의를 펼칠 것

이다. 한편 사물(사람 포함)이나 사건(동작 포함) 및 시간의 수량적 규정(많고 적음, 크기, 높이, 길이, 속도, 면적, 체적, 범위 등등)을 위해 필요한 형식이나 수단의 집합을 ‘수량범주’라고 하고 이런 수량범주를 표현하는 형식을 ‘수량표현’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면 수량범주는 기존 문법 연구에서의 수량표현, 양화사(수량사) 양화표현, 셈술말 등 몇몇 개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 ‘수량표현’이라는 개념은 수량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자연언어의 거의 모든 문장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좁은 의미로 문장 안에 수량을 의미하는 독립된 언어요소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만을 지칭한다(박철우1990:1). 다음 ‘양화사(quantifier)’는 ‘양화표현’, ‘수량사’, ‘셈술말’이라고도 하는데 그 범위의 규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대체로 명사구 안에 나타나는 수사나 수관형사로 한정하는 경우와 ‘수량’의 의미를 가진 모든 접사, 단어, 구와 절을 포함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sup>.

요컨대, 본고에서의 수량표현은 수량범주를 나타내는 독립된 언어적 요소로, 수량의 의미를 명시적이거나 내재적으로 표현하며 통사적으로 접사, 조사, 단어, 구와 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주를 통해 나타나는 요소를 가리킨다.

### 3. 수량범주의 특성

인지범주로서의 ‘수량범주’와 그것이 언어화된 언어범주로서의 ‘수량범주’는 성격상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우선 양자의 다른 점을 언어범주로서의 ‘수량범주’의 성격을 인지범주로서의 ‘수량범주’의 특성과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양화사에 관한 연구는 song(1967), oh(1971), 김영희(1984), 이영현(1984), 박금자(1985), 박철우(1990), 김영근(2000), 박철우(2012) 등을 참고.

### 3.1. 객관성과 주관성

수량이란 일정한 단위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객관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인지범주인 ‘수량’을 반영하는 언어범주의 수량범주는 객관성뿐만 아니라 주관성도 가지는 특성이 있다.

(3) 가. 다섯 개

나. 겨우 다섯 개

다. 고작 다섯 개

라. 무려 다섯 개

마. 다섯 개나

(3가)에서 ‘다섯 개’가 나타내는 수량의미는 인지범주인 ‘수량’의미와 같은 객관적인 수량의미이고 그 밖의 (3나, 3라, 3다, 3마)에서의 ‘다섯 개’는 ‘많다/적다’와 같은 ‘평가’를 나타내는 주관성이 부여된 수량의미이다. 즉 (3나, 3라)의 ‘다섯 개’는 ‘그 수량이 적다’는 평가를 나타내는 주관성이 부여된 의미인 반면 (3다, 3마)는 ‘그 수량이 많다’는 평가를 가지는 주관성이 부여된 의미이다. 이처럼 언어화된 수량범주는 객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관성도 띠게 된다.

### 3.2. 투명성과 모호성

인지범주의 수량범주는 투명한 것이 특징이지만 언어화된 수량범주는 투명성과 모호성을 모두 가지게 된다.

(4) 가. 두, 세, 네, 다섯, 여섯

나. 두셋, 두서넛, 너댓, 너더댓, 대여섯

다. 이상: 키 158cm 이상/만 20세 이상/주 3회 이상

내외: 원고지 200자 내외/10만 원 내외의 비용/10% 내외의 경제 성장

언어화된 수량범주에는 (4가)와 같이 정확한 수량을 나타내는 정수(定數)가 있어 투명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4나)와 같이 개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부정수(不定數)도 있다. 예컨대, ‘2’라는 수량의미는 인지세계에서는 ‘둘’이고 절대 ‘셋’이 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3’은 ‘셋’이고 절대 ‘둘’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언어범주에서는 ‘2’도 ‘두셋’으로, ‘3’도 ‘두셋’으로 나타낼 수 있어, ‘두셋’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모호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인지범주에서 꼭 ‘2’아니면 ‘3’이 되는 투명성과 대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4다)에서 ‘이상’은 제시된 수량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나타내며 ‘내외’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약간 덜하거나 넘음’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그 수량적 의미는 모호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인지범주의 수량의미는 그 수량범위의 어느 한 수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언어로 나타내는 수량의미는 인지세계의 투명한 수량의미를 모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범주의 수량의미는 투명성만을 가지나 언어범주의 수량의미는 투명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호성도 가지게 된다.

### 3.3. 진실성과 비진실성

인지범주의 수량은 항상 진실된 것이며 구체적인 것이다. 하지만 언어범주의 수량은 대부분 진실된 것이지만 대응되는 구체적인 수량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수량은 비진실성을 띠게 된다.

(5) 가. 백 송이 장미

가. 백번 울은 소리다

나. 인구가 천만을 넘은 지 오래다



나'. 천만 다행이야.  
 다. 만 원 짜리  
 다'. 만인의 연인  
 라. 억만장자

(5가)는 진실된 수량인 ‘100 송이’의 장미라는 뜻이고 인지범주나 언어범주의 수량에 공통되는 진실성을 보여주는 예이나 (5가')의 ‘백번’의 ‘백’은 ‘100’의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번’과 함께 ‘전적으로 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우 ‘백’은 비진실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5나)의 ‘천만’은 실제 존재하는 수량 ‘1000만’의 의미를 가지나 (5나')의 ‘천만’은 대응되는 수량적 의미가 없이, ‘아주’, ‘전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며 (5다)의 ‘만’은 ‘10000’의 수량의미이지만 (5다')의 ‘만인’의 만은 ‘모든’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한편 (5라)는 ‘헤아리기 어려운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억만’ 역시 ‘많다’의 뜻을 나타낸다. 이처럼 언어화된 수량범주에서 수량은 수사학적인 의미(비범주화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성질을 언어화된 수량범주의 비진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양자의 같은 점은, 인지범주로서의 ‘수량범주’와 그것이 언어화된 언어범주로서의 ‘수량범주’는 기본적으로 체계성, 연속성, 등급성, 정도성, 객관성, 투명성 등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량범주의 기본인 수 개념은 질서정연하고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량범주는 인지범주든 언어범주든 모두 체계성을 띠게 된다. 즉 수 개념은 어느 언어 사회에나 공통된 체계로 존재하며 ‘1, 2, 3...’으로 이어지는 각 지시의미에 대응되는 이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체계상의 빈칸이 없는 것이다(채완, 2001:125). 따라서 수량범주는 또한 연속성, 등급성, 정도성도 가지게 된다. 예컨대, 연속성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순서나 서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량범주를 통해 표현되는가 하면 등급성은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사장’ 등과 같은 직급별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한 급, 두 급’ 등의

수량의미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정도성은 ‘많고 적음’이라는 수 개념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특성인데 다만 명시적이지 않고 내재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질(質)에 대립하는 말인 ‘수량’은 기본적 범주의 하나이며 ‘얼마 만큼’이라는 물음에 해당하는 사물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다. 예컨대 사물의 수(數)나 시간, 공간적인 넓이 및 무게, 길이, 속도 등은 양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에서는 사물의 질적인 면이 도외시되므로 사물은 등질적(等質的)인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사람 수를 헤아리든지 짐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에 사람 개개인의 성질이나 물건의 내용은 아무런 상관도 없듯이, 수량이란 사물의 질적(質的) 규정을 제거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물의 측면이다. 따라서 수량이란 일정한 단위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체계성, 연속성, 등급성, 정도성, 객관성, 투명성 등 특성이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언어범주의 수량 역시 이 같은 특성을 가지게 마련이다.

#### 4. 수량범주의 체계

한국어에서 수량범주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수량을 어떤 기준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수량은 인간이 객관세계를 인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물은 이런 인지 세계의 실체이며 수량은 사물의 존재방식이다. 따라서 수량은 우선 사물의 수량 즉 실체의 수량이다. 그러므로 언어에서 썸의 대상 즉 수량화의 대상은 사물이 된다. 이런 인지세계 속 사물은 또한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 발전한다. 즉 사물은 운동, 변화 등 과정으로 사건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런 변화에 대해 시간으로 그 과정을 측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속되는 시간의 수량과 사물 변화의 발생 횟수의 수량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수량화의 대상 즉 썸의 대상은 사건이나 동작이 있게 되는 것이

다. 사물의 수량은 시간과 공간을 존재방식으로 하는데 공간의 수량 및 시간의 수량은 연속량이며 그 중 공간의 수량은 사물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수량이므로 사물의 수량으로 볼 수 있으나 시간 범주는 인간의 또 다른 인지 수단이므로 별개의 단위로 그 수량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수량범주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썸의 대상이, 지시하는 수량의 대상인 사물, 지시하는 수량의 대상인 동작이나 사건, 지시하는 수량의 대상인 시간 등이 되므로 사물의 수량, 동작이나 행위의 수량, 시간의 수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인지 개념의 수량범주와 언어화된 수량범주의 차이성에 따라 수량 범주는 진실적 수량과 비진실적 수량, 객관적 수량과 주관적 수량, 명확한 수량과 부정적 수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밖에 표현요소가 수사나 수량사구인지 여부에 따라 명시적 수량과 내재적 수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리고 수학개념에 근거하여 분류할 수도 있다.

#### 4.1. 수량의 대상에 따른 분류

한국어에서 수량범주는 기본적으로 수량화의 대상에 따라 즉 썸의 대상에 따라 사물의 수량, 동작의 수량, 시간의 수량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썸의 단위로 쓰이는 단위(분류사, 의존명사, 일부 명사) 들이 헤아리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4.1.1 사물의 수량

‘사물의 수량’은 사물을 세는 수량으로, 문법적으로 주로 명사와 관련 있다. 여기에는 사람의 수량(한 명, 한 분 등) 및 사물의 길이(높이, 깊이, 거리, 굵기 등), 면적, 체적 등과 같은 공간의 수량도 포함된다.

사물의 수량을 세는 단위사는 한국어 문법에서 분류사, 의존명사, 단

위성 명사 등으로 불리는 부류로서 부류분류사라고 하는 부류이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각자 여러 가지 분류법으로 나누고 있으나 모두 (7)과 같이 (7가)는 개체 단위사, (7나)는 집합 단위사, (7다)는 도량형 단위사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

- (7) 가. 개, 권, 명, 마리, 포기, 그루, 송이, 대, 장, 자루, 잔, 병, 컵,  
그릇, 숟가락  
나. 벌, 켈레, 타, 톳, 손, 갓, 거리, 집, 두름, 쾌, 톳, 판  
다. 미터, 킬로그램, 리터

#### 4.1.2. 동작의 수량

‘동작의 수량’은 행위나 동작의 반복 횟수를 말한다. 사전에서 ‘동안’을 세는 단위는 동작 단위사일 수도 있고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단위사일 수도 있다. 한국어의 동작 단위사는 동작이나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이며 그 주요 기능은 동작을 수량화하는 것이고 부차적으로 특질화하기도 하며 ‘수 관형사+동작 단위사’의 수량구성을 형성하여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앞에 선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한국어의 동작 단위사는 (8가)와 같이 [+순간성]의 동작동사로 나타나는 동작의 횟수를 세는 동작 단위사와 (8나)처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일(사건)의 횟수를 세는 동작 단위사로 나눌 수 있다(채옥자, 2012: 301-325 참조).

- (8) 가. 걸음, 대, 발, 방, 배, 번, 사리, 수, 말/말짝 등  
나. 끼(니), 고팡이, 바퀴, 판, 벌, 차례, 축 등

#### 4.1.3. 시간의 수량

‘시간의 수량’은 사물, 성상 및 사건과 관련 있다. 사물, 성상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변화하며 사건은 시간 속에서 발생하고 발전하며 마

무리된다.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고 기술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의 각도에서 그 수량을 헤아리게 된다. 시간의 수량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9가)와 같이 시간점을 표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흐른 양을 (9나)와 같은 단위사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 (9) 가. 5초, 4분, 6시, 7일, 8월, 2013년, 오늘, 올해, 내년, 나중에, 앞으로  
나. 초, 분, 시간, 일, 달, 개월, 년, 세기

이처럼 수량은 수량의 대상에 따라 사물의 수량(사람의 수량과 공간의 수량을 포함), 동작의 수량, 시간의 수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수량범주의 가장 기본적인 하위분류이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한국어 문법연구에서 분류사 체계의 설정에 근거를 제공해주게 된다.

한국어는 이른 바 분류사<sup>2)</sup> 언어로 분류사가 매우 발달하였으며 수량범주의 전형적인 수단은 수사나 수량사구이며 이는 명시적인 표현에 속한다. 수사와 분류사의 구성으로 수량을 헤아릴 경우, 수사는 흔히 집단 중의 개체 혹은 전체 중의 부분을 나타내고 분류사는 흔히 부류화의 기능을 가진다. 예컨대, ‘한 개, 한 포기, 한 마리’ 등은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고 ‘한 번, 한 판, 한 차례’ 등에서의 분류사는 행위나 동작의 수량을 나타낸다. 분류사는 수량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부류화의 기능도 있기에 사물의 수량으로 사물을 대체하는 대용적 기능이 있다(예: 두 공기(밥)로 모자란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분류사의 주요 기능은 어디까지나 어떤 대상의 셈을 세는 단위를 제공하는 기능이고 부류화의 기능은 부차적인 것임은 이미 박진호(2011), 채옥자(2012) 등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단위’로 되는 분류사는 어떤 대상을 세는 단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을/를 세는 단위’로 해석된 낱말들을 보면, 사물(사람)을 세는 단위 외에, ‘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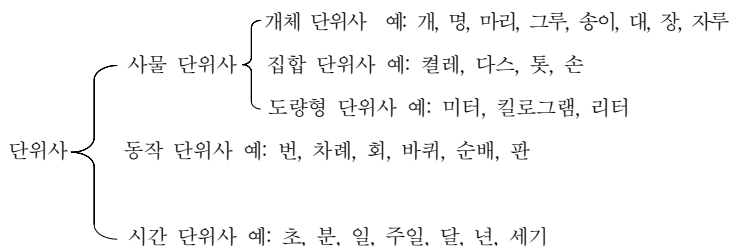
2) 이하 분류사는 단위사와 같은 뜻으로 사용함.

수'를 세는 단위, '차례'를 세는 단위, 그리고 '동안(기간)'을 세는 단위' 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사물을 세는 단위는 사물 단위사이고 '횟수'와 '차례'를 세는 단위는 동작 단위사이며 '동안'을 세는 단위는 동작 단위사일 수도 있고 시간 단위사일 수도 있다. 예컨대, '바탕'은 '어떤 일을 한 차례 끝내는 동안'을 세는 단위'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동작 단위사이고 '날'은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동안'을 세는 단위'라고 해석되었는데 이는 시간 단위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은 수량 범주의 기본분류와 같은 맥락으로, 문법적으로 보면, 사물 단위사는 수사와 수량사구를 이루어 명사로 나타나는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고 동작 단위사는 수사와 수량사구를 이루어 동사로 나타나는 동작의 수량을 나타내며 시간 단위사는 수사와 수량사구를 이루어 사물 및 사건과 관계되는 시간의 수량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수량범주의 기본분류를 기준으로, 기존의 문법연구에서의 분류사의 체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사물 단위사와 동작 단위사 및 시간 단위사를 한 평면 위에 설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동작 단위사와 시간 단위사를 사물 단위사에 포함시키는 체계(최현배(1971), 채완(1990)), 동작 단위사와 사물 단위사를 도량형 단위사와 대등한 층위에 설정하는 체계(성광수(1975), 광추문(1995)), 동작 단위사와 시간 단위사를 설정하지 않은 체계(김영희(1981), 유동준(1983)), 시간 단위사를 설정하지 않은 체계(우형식(2001)) 등이 있다<sup>3)</sup>. 같은 하나의 논리적 층위에 있는, 사물 단위사, 동작 단위사, 시간 단위사 등을 다른 층위에 설정하거나 그 중 어느 하나를 빠뜨려 빈칸을 보이는 체계는 사물이나 동작(사건) 및 시간의 수량과 관계되는 언어현상을 본질적으로 체계 속에서 파악하는 데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분류사를, 기본적으로 사물 단위사, 동작 단위

3) 우형식(2001: 123-179)에 의하면, 한국어 분류사의 체계 설정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크게 양적 범주화 중심(최현배(1971: 223), 성광수(1975), 김영희(1981))이거나 유적 범주화 중심(유동준(1983), 채완(1990), 오상룡(1995), 광추문(1995))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우형식(2001)에선 기능 중첩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사, 시간 단위사로 나누고 사물 단위사는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분류법이 있으나 어떠한 단위사도 모두 포함시키는 분류로, 개체 단위사, 집합 단위사, 도량형 단위사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2. 인지 개념의 수량범주와 언어화된 수량범주의 차이성에 따른 분류

### 4.2.1 진실적 수량과 비진실적 수량

언어범주로서의 수량범주는 진실성과 비진실성을 가지고 있기에 수량은 진실적 수량과 비진실적 수량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비진실적 수량은 대응되는 구체적인 수량의미가 없어진 수량표현을 가리키는데 수사학적 의미나 비범주화된 의미라고도 한다.

다시 (5)를 돌이켜보면 (5가)의 ‘백’, (5나)의 ‘천만’, (5다)의 ‘만’은 진실적 수량이고 (5가)의 ‘백번’의 ‘백’, (5나)의 ‘천만 다행’의 ‘천만’, (5다)의 ‘만인’의 ‘만’은 비진실적 수량이 된다. 또한 이미 통시적인 의미 변화를 거쳐 수량의미가 완전히 소실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십분(十分)’과 같은 경우는 수량적 의미가 없어져 ‘아주 충분히’라는 의미로 ‘너의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에서처럼 통사적으로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런 경우는 속담이나 성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오십보 백보(五十步百步)’와 같은 경우에 ‘50’이나 ‘100’이라는 수량과 상관없이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예: 49등이나 50등이나 오십보백보보다).

#### 4.2.2. 객관적 수량과 주관적 수량

객관성과 주관성의 특성을 가지는 언어범주의 수량은 객관적 수량과 주관적 수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관적 수량은 다시 주관적 대량과 주관적 소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지범주의 수량과 언어범주의 수량 모두 객관성을 가지므로 객관적 수량이 있고 언어범주의 수량은 주관성도 가지므로 주관적 수량이 있게 되는데 한국어에서 어떤 요소로 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자.

한국어에서 주관적 수량은 주관적 대량과 주관적 소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관적 대량은 '그 수량이 많다'고 하는 평가가 부여된 수량표현이고 주관적 소량은 '그 수량이 적다'고 하는 평가가 부여된 수량표현을 가리킨다. 주관적 대량 표현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음을 나타내는 말인 부사 '무려'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그 수가 많음을 나타내는 말인 특수조사 '-(이)나'가 있다. 그밖에 시간(나이)의 수량일 경우, 그 시간적 수량이 많다고 평가하는 의미가 부여된 표현은 '무려' 외에 '벌써'가 더 있다(예: 벌써 세 시간 기다렸어, 벌써 서른이야). 그리고 주관적 소량 표현은 '겨우, 고작, 기껏' 등이 있으며 '불과', '뽀', '-밖에 없다' 등도 주관적 소량을 표현할 수 있다. 그밖에 수량이 시간의 수량일 경우 '겨우' 외에 '이제'도 시간의 주관적 소량을 나타낼 수 있다(예: 이제 삼분 기다렸어, 이제 스무 살이야).

#### 4.2.3. 명확한 수량과 부정(不定)적 수량

투명성과 모호성을 가지는 언어범주의 수량은 명확한 수량표현과 부정(不定)적 수량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수량 표현의 수사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등과 같은 정확한 수량을 나타내는 정수(定數)뿐



아니라 개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한둘, 두셋, 두서넛, 서넛, 너댓, 몇, 너더댓, 대여섯, 예닐곱, 일여덟, 여럿, 몇’ 등과 같은 부정수(不定數)도 있다. 또한 명시적 수량표현 즉 수사나 수량사구와 같은 표현과 어울려 수량의 모호성을 반영하는 ‘이상, 가량, 안팎, 내외, 내지, 초과, 미만’ 등과 같은 명사들이 있는데 이 경우 앞의 수량표현과 더불어 부정적 수량표현이 되며 흔히 수량의 범위를 나타낸다. 예컨대,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가량(假量)’이 붙은 ‘10%가량/한 시간가량/30세가량’, ‘어떤 수량이나 기준에 조금 모자라거나 넘치는 정도’의 뜻을 더하는 ‘-안팎’이 붙은 ‘십 리 안팎/100여 명 안팎/2만 원 안팎/10시 안팎/사십 안팎’, ‘앞의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나타내는 ‘미만’이 붙은 ‘오 세 미만/삼십 미만/천 명 미만’,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을 의미하는 ‘초과’가 붙은 ‘30세 초과’,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여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내지’가 붙은 ‘열 명 내지 스무 명/백 평 내지 이백 평/하루 내지 이틀’ 등과 같은 경우가 부정적 수량이 되며 수량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 4.3. 명시적 수량과 내재적 수량

한국어에서 수량은 수사나 수량사구로 표현되는 명시적 수량과 기타 언어 수단으로 표현되는 내재적 수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량’은 인간이 주변세계를 인식하고 기술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사물, 사건, 성상(性狀) 등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지 세계에는 수량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데가 없다. 사물의 수량은 공간과 관계되고 사건의 수량은 시간과 관계되며 사물 및 사건의 통계나 환산은 흔히 수사나 수량구성과 같은 명시적인 수량 표현을 사용하게 되며 성상(性狀)의 수량은 일반적으로 계산에 이용되지 않으며 수사나 수량사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로 그 수량의 등급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수량범주 역시 명시적으로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와 내재적으로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가 있게 되는데 수사나 수량

사구(수사와 단위사의 결합)와 같은 경우는 수량의미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명시적 수량이고 다음 (10), (11)과 같은 경우는 수량의미를 내재적으로 나타내는 내재적 수량이다.

- (10) 가. 이상, 가랑, 안팎, 내외, 내지, 초과, 미만, 들03, 장기간, 요즈음,  
연말, 이전, 쌍둥이, 또래, 가족, 대중, 무리, 때, 숲  
나. 많다, 적다, 흔하다, 잦다, 가깝다, 근접하다, 넘다, 초과하다  
다. 자주, 일췌, 많이, 너무, 아주, 매우, 조금, 갑자기, 잠깐  
라. 모든, 전부, 모조리  
마. -나  
바. -거리-, -대-, -이-  
사. -들09, 단-, 흘-, 덧-, 겹-, 복-, -끼리, -진, -투성이, -배, -네,  
-여, -대, -질  
아. 우리, 너희  
자. -자(-자꾸나), -ㅁ시다  
차. 짝, 켜레, 쌍, 벌; 다발, 묶음, 질, 축, 갓, 거리, 집, 두름, 꽤, 톳, 판
- (11) 가. 집집/집집이, 나날/나날이, 곳곳/곳곳이, 구석구석, 소리소리  
나. 개개이, 날날이, 쌍쌍이, 번번이, 마디마디, 가지가지, 송이송이,  
조목조목  
다. 깊이깊이, 빨리빨리, 오래오래, 자꾸자꾸, 문득문득  
라. 쓰디쓰다. 달디달다, 곱디곱다, 크나크다, 기나길다, 머나멀다  
마. 끼리끼리  
사. ‘-거나 -거나’ 구성, ‘-느니 -느니’ 구성, ‘-든가 -든가’ 구성,  
‘-든지 -든지’ 구성, ‘-으나 -으나’ 구성  
아. (십억)에 가까운, (5억)을 넘는, (2억)을 웃도는, (열 개) 뿐이다,  
(열 개)밖에 없다

(10)의 예들은 수량의미를 내재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가)의 ‘이상(以上)’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키’고 (10나)에서 ‘많다, 적다, 흔하다, 잦다’ 등은 ‘수량’에 대한 평가이고 ‘수량’ 자체의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가깝다, 근접하다’는 ‘기준 수치에 접하다’라는 뜻이고, ‘넘다, 초과하다’는 기준 수치를 지난(벗어난) 수치를 나타낸다. (10다)의 ‘자주’는 사건이나 동작의 빈도 수량을 나타내고 ‘일쭉’은 ‘드물지 아니하게 흔히’의 뜻으로 사건의 빈도 수량의 의미가 있는 부사이다. (10라)는 ‘전칭(全稱)’의 판단의 양을 가리킨다. (10마)는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크거나 많은 수량임, 또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로,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달걀을 다섯 개나 먹었느냐?’와 같이 흔히 놀람의 뜻이 수반된다. 또한 “몇 시나 되었을까?”처럼 (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수량이나 정도를 어렵잡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위가 온다고 닭 마리나 잡았지”처럼 (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많지는 아니하나 어느 정도는 됨을 나타내기도 한다. (10바)의 ‘-거리-’와 ‘-대-’는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중에서 가장 생산적인 접미사들로, 동작성 어근과 결합하여 여기서 의미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송철의(1992:189)). 이병근(1986:401)에서는 ‘-거리다/-대다’는 동사와 파생접미사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까지 하였는데 ‘동작의 반복’이 바로 그 동사적 의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송철의(1992:198)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복적 동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끄떡하다’와 ‘끄떡이다’, ‘깜박하다’와 ‘깜박이다’등을 비교해 보면 ‘-이-’가 반복적 동작과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10사)의 ‘-들’은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고 ‘-질’은 도구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나타내는데 대개는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미를 갖게

된다(송철의(1992:165). 예컨대, ‘가위질/부채질’ 등과 같은 것이다. (10사)의 ‘-끼리’는 복수성을 가지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우리끼리/자기들끼리’와 같이 쓰인다. 그리고 (10아)의 ‘우리’는 대명사로,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로 ‘여러’라는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그밖에 (10자)의 ‘-자’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고 ‘-히시다’는 하오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모두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복수’의 수량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0아)는 명시적 수량표현과 함께 수량의미를 보충해주는 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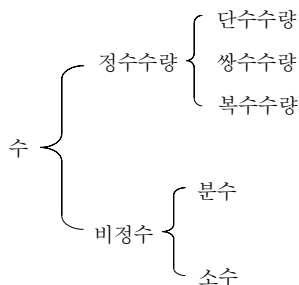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10)은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수량의 의미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수량의 표현과 함께 보충적 의미를 더하거나 수량의미를 평가하는 등 수량의미와 관계되는 표현들이다. 이런 표현들은 (10마, 10바, 10사)와 같은 형태소가 있는가 하면 (10가)와 같은 명사나 의존명사, (10다, 10라)의 부사, (10나)의 동사, (10아)의 대명사, (10자)의 어미, (10차)의 분류사 등 다양한 통사적 단위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0차)에서 ‘짝, 켜레, 쌍’에는 숫자 ‘2’라는 수량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갯, 두름’은 10, ‘쾌’는 ‘20’, ‘판’은 ‘30’, ‘툇’은 ‘40’, ‘거리’는 ‘50’, ‘쩍’은 ‘100’의 수량적의미가 있다. 그밖에 ‘다발, 묶음, 질, 축’ 등은 한정된 숫자의 의미는 아니나 ‘많은 수’라는 수량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밖에 내재적 수량의미를 나타내는 표현형식으로 반복 구성이 있다. (11가)는 명사의 반복형으로 ‘모든’ 또는 ‘모두’라는 전칭의 수량적 의미를 나타내고 (11나)는 분류사의 반복형으로, ‘-마다’, ‘모두’의 수량적 의미를 나타내며 (11다)는 부사의 반복형으로 정도나 시간의 수량적 의미가 있으며 (11라)는 형용사의 반복형으로 정도의 수량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11마)는 조사의 반복형으로 ‘여럿이 무리를 지어 따로 따로’라는 뜻으로 ‘복수’라는 뜻이 있다. 한편 (11사)는 어미의 반복형 구성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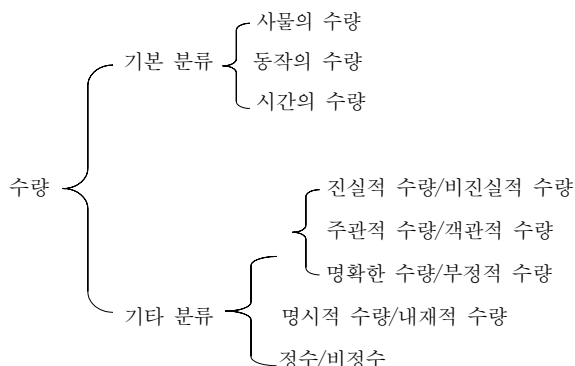
열린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대상'을 나타낸다는 수량적 의미가 있다.

#### 4.4. 수학 개념에 근거한 분류

수량범주는 수학적 개념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Lakoff(1987)는 '정수(整數)'가 수량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량은 '정수수량'과 '비정수수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수수량은 주로 '정수'를 기본으로 이루어진 수량으로 예컨대 '사과 두 개', '학생 두 명'에서 '둘'이 정수이고 '두 개', '두 명'이 정수수량이다. 한편 비정수수량은 '비정수'로 이루어진 수량으로 직접적으로는 소수나 분수로 이루어진 수량이며 '반'과 같은 말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사과 한 개 반', '물 1.8리터'의 경우 '한 개 반'이나 '1.8리터'와 같은 경우이다. 자연수에서 정수는 단수, 쌍수, 복수 등으로 분류되듯이 정수수량 역시 단수수량, 쌍수수량, 복수수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한 마리', '나/너/그' 등은 단수수량이고 '둘'의 의미가 있는 '두 개', '짝, 벌, 손, 켄레' 등과 같은 표현은 쌍수수량이며 '셋이나 셋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경우는 복수수량이 된다. 예컨대, '갓, 거리, 접, 두름, 꽤, 톳, 판, 우리, 너희, 끼리끼리, 무리, 떼, 대중'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상의 수량분류의 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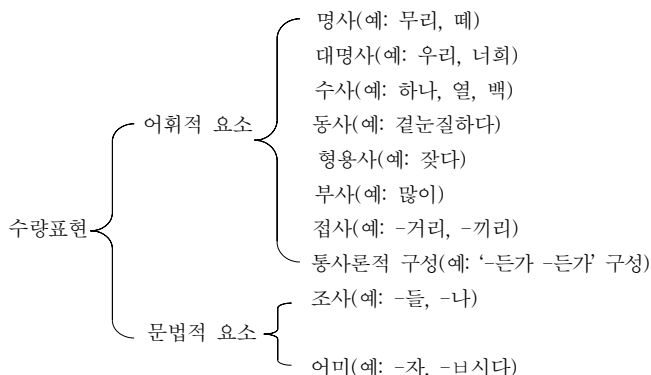
## 5. 한국어의 수량표현

이상 한국어의 수량범주의 특성 및 체계에 대한 검토에서 보다시피 한국어에서 수량적 의미는 명사, 수사, 분류사, 형용사, 동사, 양화사, 의존명사, 조사, 어미, 수량사구, 반복구성 등 다양한 요소와 단위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중 수사나 수사와 단위사(분류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수량사구로 표현되는 것이 전형적이고 이는 명시적 표현에 속하며 그 밖의 요소들로 표현되는 경우는 수량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수량 의미와 관련되는 것과 같은 내재적 표현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는 다양한 통사적 범주에 걸쳐 나타나게 되는데 크게 어휘적 요소, 문법적 요소, 반복구성 요소, 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에서 (10가)의 ‘이상, 가량, 안팎, 내외, 내지, 초과, 미만, 들03, 장기간, 요즈음, 연말, 이전, 쌍둥이, 또래, 가족, 대중, 무리, 때, 숲’ 등은 명사이고 (10나)의 ‘많다, 적다, 흔하다, 잦다, 가깝다, 근접하다, 넘다, 초과하다’ 등은 형용사이며 (10다), (10라)의 ‘자주, 일쭙, 많이, 너무, 아주, 매우, 조금, 갑자기, 잠깐, 모든, 전부, 모조리’ 등은 부사이다. 그리고 (10마)인 ‘-(이)나’는 특수조사이고 (10바, 10사)의 ‘-거리-, -대-, -아-, -들09, 단-, 홀-, 덧-, 겹-, 복-, -끼리, -진-, -투성이, -배, -네, -

여, -대, -질’ 등은 접사이다. 한편 (10아)의 ‘우리, 너희’ 등은 대명사이고 (10자)의 ‘-자(-자꾸나), -히시다’ 등은 종결어미이며 (10차)의 ‘ 짹, 쫄레, 쌍, 벌; 다발, 묶음, 질, 축, 갓, 거리, 접, 두름, 꿰, 툇, 판’ 등은 분류사이다. 이처럼 수량범주를 나타내는 표현요소는 명사, 형용사, 부사, 접사 등과 같은 어휘적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요소도 있다. 그런가 하면 (11)과 같은 반복구성과 구 및 절도 있다. (11가)의 ‘집집/집집이, 나날/나날이, 곳곳/곳곳이, 구석구석, 소리소리’ 등은 명사의 반복형이고 (11나)의 ‘개개이, 날날이, 쌍쌍이, 번번이, 마디마디, 가지가지, 송이송이, 조목조목’ 등은 분류사의 반복형이며 (11다)의 ‘깊이깊이, 빨리빨리, 오래오래, 자꾸자꾸, 문득문득’ 등은 부사의 반복형이고 (11라)의 ‘쓰디쓰다, 달디달다, 곱디곱다, 크나크다, 기나길다, 머나멀다’ 등은 형용사의 반복형이며 (11마)의 ‘끼리끼리’는 접사의 반복형이고 (11바)의 ‘-거나 -거나’ 구성, ‘-느니 -느니’ 구성, ‘-든가 -든가’ 구성, ‘-든지 -든지’ 구성, ‘-으나 -으나’ 구성 등은 어미의 반복구성이다. 한편 (11아)의 ‘(십억)에 가까운, (5억)을 넘는, (2억)을 웃도는, (열 개) 뿐이다, (열 개)밖에 없다’ 등은 수량표현과 어울리어 보충적 의미를 더 해주는 구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해볼 수 있다.



## 6.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에서 수량범주는 양태범주, 공간범주, 시간범주 등과 같은 의미범주와 함께 의미문법연구의 일환으로 될 수 있음을, 수량범주의 개념, 수량범주의 특성, 수량범주의 체계, 수량범주의 표현 양상 등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보았다. 요컨대, 수량범주는 사물(사람 및 공간 포함)이나 사건(동작 포함) 및 시간의 수량적 규정(많고 적음, 크기, 높이, 길이, 속도, 면적, 체적, 범위 등등)을 위해 필요한 형식이나 수단의 집합이며 이런 수량범주를 표현하는 형식이 수량표현이다. 한국어에서 수량표현은 독립된 언어적 요소로, 수량의 의미를 명시적이거나 내재적으로 표현하며 통사적으로 접사, 조사, 단어, 구와 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주를 통해 나타난다. 수량범주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체계성, 연속성, 등급성, 정도성, 객관성, 투명성 등이 있으며 그밖에 주관성, 모호성, 비진실성 등과 같은 특성도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수량범주의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수량범주의 체계를 기본분류와 기타분류로 나누어 보았다. 기본분류는 수량의 대상에 따라 나눈 분류로, 사물의 수량, 동작의 수량, 시간의 수량 등으로 나눈 분류이다. 기타분류는 수량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진실적 수량과 비진실적 수량, 주관성 존재 여부에 따라 주관적 수량과 객관적 수량, 모호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명확한 수량과 부정(不定)적 수량, 표현요소가 수사나 수량사구인지 여부에 따라 명시적 수량과 내재적 수량 등으로 나눈 분류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의 의미문법연구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기초적인 연구로, 역으로 문법 범주의 의미 규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주로 분류사의 분류체계를 재조명해 보는 것을 통하여 논의하였다. 그 외에도 특수조사 ‘-(이)나’의 의미 및 양태 부사 ‘겨우’의 의미적 특성 등을 밝히는데 있어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수량범주를 객관적 수량과 주관적 수량으로 분류함으로써 수량표현과 어울리는 특수조사 ‘-(이)나’의 의미적 특성을 한층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경우의 ‘-(이)나’는 주관적 수량의 의미에서 주관적 대량의 의미



를 가지는 것으로, ‘수량이 크거나 많다’고 하는 화자(서술자)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부사 ‘겨우’의 사전적 의미에는 부사 ‘너무’와 대응되게,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가 ‘예상보다 아주 적음’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곽추문(1995), 한국어 분류사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김영근(2000), 《국어 수량사 연구》, 문창사.  
 김영희(1981), 부류 셈술말로서의 셈가름말, 《배달말》 6, 배달말학회.  
 김영희(1976), 한국어 수량화 구문의 분석, 《언어》 제1권 제2호, 89-112.  
 김영희(1984),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탑출판사.  
 김지홍(1994), 수량사를 가진 명사구의 논항구조, 《배달말》 19, 1-48, 배달말학회  
 박금자(1985), 國語의 量化詞 研究-의미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호(2011), 소유 분류사와 한국어의 속격 표지, 유형론연구회제4회연구발표회자료  
 집(2011.07).  
 박철우(1990), 한국어 수량표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철우(2012), 양화사와 의미, 《한국어 의미학》 39, 1-23, 한국어의미학회.  
 송철의(1992),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태학사.  
 성광수(1975), 소위 불완전명사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어문학》 33, 한국어문학회.  
 신호철·이현희(2009), 한국어 수량 구성의 유형과 특징, 《문법교육》 11, 201-227, 한국문법교육학회.  
 이병근(1986), 國語辭典과 派生語, 《語學研究(서울대)》 제22권 제3호, 389-408.  
 이영현(1984), 《양화사의 의미표시와 해석》, 한신문화사.  
 오상룡(1995), korean numeral classifiers: Semantics and universals, 《담화와 인지》 1, 담화·인지학회.  
 우형식(2001), 《한국어 분류사의 범주화 기능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유동준(1983), 국어의 분류사와 수량화,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채옥자(2012), 한국어의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세는 동작단위사에 대하여, 《국어학》 64, 301-325, 국어학회.

- 채 완(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70, 진단학회.
- 채 완(1982), 국어 수량사구의 통시적 고찰: 어순변화의 일례로서, 《진단학보》 53·54, 155-170, 진단학회.
- 채 완(2001), 수의 표현과 의미, 《한국어 의미학》 8, 109-132.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 李宇明(2000), 《漢語量範疇研究》, 華中師範大學出版社(중국).
- Lokoff, George(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이기우 옮김, 1994, 「인지 의미론」, 한국문화사.)
- Oh, J.-K(1971), Aspects of Korea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Song, S.-J(1967), Some Transformational Role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

[200433, 中國上海市邯鄲路220号 復旦大學外文學院韓語系]

전화: 86-21-6564-3488

E-mail: yzcai@fudan.edu.cn

투고 일자: 2013. 10. 24.

심사 일자: 2013. 10. 26.

게재 확정 일자: 2013. 11. 17.

## The Quantity Category in Korean and its Expression Aspects

[Cai, Yuzi]

한국어의 수량범주와 그 표현 양상 [채옥자]

The quantity category is a general phenomenon in all languages, however, specific expressions can be very different along with a specific language. For example, in Korean, morpheme, words and even phrases are used to express the quantity category. And at the same time, the words may follow different categories to represent the quantity meaning. In the traditional grammar system, we have been doing research on morphosyntactic numeral, classifier and quantifier. With a different point of view, in this paper, the quantity category can be regarded as a stage of semantic grammar just like modality category, category of space and time through figuring out the characteristics, system and doing research on image expressions. Firstly, the conceptions of quantity and this category are founded. Then the characteristics have been explained. Last but not the leas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in 3 chapters, I tried to do some more detailed classification to set up a system. It makes great sense in grammar research with a new exploring in the categorization system of classifier of Korean. It will be very satisfactory if the research on expression aspects analyzed can play a role as the basic foundation of the grammar research of Korean.

Key words: quantity, cognition, quantity category, expression aspects of quantity category